

1차 시한 마감…연장전 들어간 BBK 특검

도곡동 땅 수사 의외 성과 기대

李 당선인 직접조사 여부 촉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간 30일이 13일로 끝난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연장 승인을 받아 열흘의 추가 시간을 확보한 특검팀은 빠듯한 시간 안에 BBK, 도곡동 땅 및 쿠다스의 실소유, 상암 DMC 특혜분양,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등 네 줄기 수사를 마무리해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40일의 기간 중 30일은 써 버린 특검팀이 '연장전'을 통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 갈래 수사 어디까지=BBK 의혹 수사의 핵심은 김경준씨의 음서널벤처스 횡령 및 주가조작 범행을 당선인이 알고 있었는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경준씨의 것으로 결론 낸 (주)BBK 부자문이 실질적으로 당선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회사가 아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주적인데 다음 주까지 계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잠정 결론은 내린 것은 없다"며 수사가 간단치 않을 것을 시사했다.

반면 도곡동 땅 및 쿠다스 실소유의 흑과 관련해서는 작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도곡동 판매 대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 등 중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으며 의외의 수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기대감도 커

지고 있다.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은 한도산 업개발 윤여덕 대표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기획 위원 등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는 등 가장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 놓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씨가 외국 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E-1 부지 9천490㎡를 분양받았고 여기에 짓는 건물의 50% 이상을 외국인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 조사하나=특검팀은 "(당선인 신분자에 대한 소환·조사·기소·재판 등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는 끝났다"면서도 "뭘 전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비록 당선인이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현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화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으므로 취임 전날인 다음달 24일 자정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대선 과정에서 'BBK 명함'을 공개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에 불을 지폈던 이장준 전 싱가포르 대사를 13일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180명 앤팎의 외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외빈 100여 명보다 두 배 가량 많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외빈이 자리리를 끘웠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의 240여 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국가수반 중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남바린 앙흐비아르 몽골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일찌감치 참석의사를 피력했고, 훈

센 총리는 이 당선인이 2000년 자신의 경제 정책 고문을 맡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참석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주변 4강(強) 정부 고위급 대표를 파견, '취임식 외교'라고 부를 정도의 성의를 표시할 전망이다. 콜린자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엔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가 바로 그들.

또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닉루쿠이 주한 중국대사, 글리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사절을 비롯한 180여 명의 주한 외교단도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개국 정상 등 외빈 180여명 참석